

# 테마 1 : 관광 진흥 / 리저널 리포트

테마명	관광 진흥	지방정부명	서자바주
시책 명칭	서자바주 스마트 투어리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자바주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다.</li> <li>• 1,924 개소의 관광명소와 4,882 건의 오락시설을 가진 서자바주는 인도네시아 '무슬림 트래블 인덱스(IMTI)2019'에서 베스트 할랄 관광목적지로 선정되었다.</li> <li>• 인더스트리 4.0의 관점에서는 2, 3년 후 '스마트 주'의 실현을 제창하던 서자바주 주지사의 성명에 따라 '고 디지털 무브먼트' 캠페인을 실시하였다.</li> <li>• 서자바주 스마트 투어리즘(WJST)은 그 특징으로 봐서 '정부 주도 마케팅 솔루션의 포괄적 개념'이다.</li> </ul>		
예산액	Rp. 5,000,000,000-	US\$ 333,334	

## 1. 과제 (현재 상황)

- 산악지역인 서자바주에는 많은 강이 흐르고 남북 800km에 이르는 해안선에는 비치와 점재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리적 조건과 더불어 베타위 말레이어권, 프리아칸 언어권, 판투라언어권과 같은 3개 언어권이 문화적 다양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자바주의 관광은 경제 견인력으로서의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 1,924 개소의 관광명소를 가진 서자바주 관광에는 112 개소 자연관광명소와 436 개소의 문화적 관광명소 외에 특정 관심사나 목적별로 관광객을 매료시키는 376 개소의 명소가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중앙 통계 데이터에 의하면 서자바주에는 4,882 건의 오락시설이 존재하며 그 중에 레스토랑이 1,635 건, 소규모 레스토랑이 2,608 건, 카페가 639 건으로 되어 있다. 한편 숙박시설로서는 535 건 존재하며 1성급 호텔이 32 건, 2성급 호텔이 96 건, 3성급 호텔이 174 건, 4성급 호텔이 210 건, 5성급 호텔이 23 건이다.
- 서자바주 지사는 서자바주를 '관광 주'로서 규정하고 2023년에는 3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 방문과 6,000만명의 국내관광객 방문 및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급속한 대규모 기술개발은 인더스트리 4.0을 향한 발전을 나타내는 징후의 하나다. 데이터 교환과 오토메이션 경향은 관광산업을 포함한 몇가지 산업에서 이미 시작되었으며 서자바주는 2019년부터 2023년에 걸쳐 내건 서자바 비전 '이노베이션과 콜라보레이션 (종교 · 행복 · 공정 · 콜라보레이션 · 이노베이션에 관한 가치)을 통한 투어리즘 챔피언 주'의 실현을 목표로 한 시책을 실행한다.

## 2. 목표 (장래상)

밀레니얼 세대의 70%는 이미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향유하고 있어 스마트폰 상의 앱 하나로 목적지와 메시지를 열람하거나 요금을 지불하는 등 저렴하고 간편한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서자바주는 서자바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노베이션 정책을 실시하여 디지털 인더스트리 4.0혁명을 전면적으로 맞이함에 있어서의 독자적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그를 위해서는 관광객이 앱 하나로 정보수집과 주문·결제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러한 플랫폼은 디지털 투어리즘에 있어 유형의 성과물이 될과 동시에 중소기업(SME)에게 있어서는 디지털 마켓 플레이스를 통한 상품판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시책은 앞으로 2, 3년 이내에 서자바주를 '스마트 주'로 변모시킬 것을 목적으로 지사가 선언하고 디지털 무브먼트와 합치하는 것이다.

## 3. 시책 내용

### (개요)

- 서자바 스마트 투어리즘은 서자바주 관광의 운용개념이며 그 일례로서 편리성을 통해 관광객에게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 서비스 시스템이다.
- 서자바 스마트 투어리즘의 4 개 축이 되는 것이 디지털 마케팅 시스템, 종합 관광서비스, 관광정보시스템,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다.

###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 과거 5년간 서자바주에의 국내관광객 방문과 타겟 고객의 숙박시설 이용이 대폭 증가하였다.
- 서자바주정부는 관광문화성을 통해 인도네시아 ‘무슬림 트래블 인덱스(IMTI) 2019’의 베스트 할랄 관광목적지 상을 수상하였다.

### (순조롭게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

- 베트남, 라오스, 태국과 같은 근린 각국과의 프로모션 경쟁격화로 서자바주에의 관광객은 감소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도 같은 경향에 놓여있다.
- 서자바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자수와 국내 여행자수의 수집에 관해 데이터가 중복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데이터 불균형도가 커져 마케팅 전략을 책정, 실행하는데 있어 편중이 발생하고 있다.

## 4. 참고 자료

